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0. 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NATO, '한국대표부 승인' 통해 대테러 등 안보 협력강화 추진
 - 9.28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“駐벨기에 한국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韓정부의 제안을 승인한다”고 발표하며, 사이버·대테러 분야 등 안보이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 강조
 - * 한국은 아태지역 파트너국(한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) 중 마지막으로 대표부 개설 예정

미주

- 美, 총기난사 피해자 총기제조사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
 - 9.28 언론은 하이랜드파크市 총기난사* 피해자 유족 등이 총기 제조사 '스미스 앤드 웨슨', 총포상 2개소, 피의자 「크리모」와 그의 부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
 - * 7.4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7명 사망, 48명 부상
- 美, 보수성향 연방대법원 '총기규제' 완화 요구 이례적 반대
 - 10.4 언론은 “보수성향이 강한 美 연방대법원이 그간 일련의 '총기 규제 완화' 판결들과 달리 보수단체의 '범프스탁(Bump Stock) 사용금지 행정명령’에 대한 ‘허용 요청’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”고 보도
 - * ‘범프스탁’은 소총 사격속도를 높이는 부품으로, '17년 리스베이거스 총격테러범이 사용하여 대중에 알려졌으며, 규제여론 증대에 따라 '19년 「트럼프」 행정부에서 사용금지 행정명령 발효

아 · 태평양

○ 경찰청, 10월 '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' 예정

- 경찰청은 지난 9월 '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' 운영을 마친 가운데, 10월 한 달간 '불법무기류 집중단속'을 실시해 사제총 등 총기·폭발물 불법 제조·판매·소지, 제조방법 SNS 게시 등 사법조치 예정

○ 외교부, 정부-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

- 9.30 외교부는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, 참석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 테러 정세와 해외 사건사고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정부와 여행업계 간 협력방안 논의
 - * 간담회에는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여행업협회 소속사들이 참석,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국 여행 중 대마 관련 위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협의

○ 인도 정부, 이슬람단체 인도대중전선(PFI) 불법조직 규정

- 9.29 언론은 인도 내무부가 수만명의 회원을 가진 PFI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해 테러리즘·표적 살인·공공질서 훼손 등과 연관됐다고 '불법조직'으로 규정, 5년간 활동 금지령을 발표했다고 보도
 - * 일부 PFI 조직원의 ISIS 가입, 시리아·이라크·아프간 등지에서 테러활동 주장

중 동

○ 예멘, 후티 叛軍 휴전연장 반대

- 10.2 UN 예멘특사는 후티叛軍이 정부軍의 협정 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휴전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兩側이 정전협정 연장 합의에는 실패했으나,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
 - * UN 중재로 지난 4월 정전협정이 시행되었으며 두 차례 연장을 거쳐 10.2 종료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공동 창립자 사살

- 10.2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 1일 국제적인 대테러 합동작전을 통해 알샤바브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「압불라히 나디르」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며, 작전에 참가한 국가·단체에 대해서는 未언급
 - * 지난 5월 선출된 「하산 셰이크 모하무드」 대통령은 알샤바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약속

프랑스, 마르세유 기차역 흉기 테러

- '17.10.1, 오후 1시 30분경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市 중심가의 생샤를 기차역 앞 광장에서 「아흐메드 하나치」 (튀니지 국적, 남)가 자행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여성 2명 사망
- 테러범은 역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2명의 여성에게 접근 후 칼로 찔러 살해*하고 도주하다가 특별경계작전 '상티넬**'에 따라 역사 인근을 순찰하던 군인들의 사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
 - * 목격자들은 테러범이 범행 당시 “神은 위대하다”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언급
 - ** '15년 파리 테러(130여명 사망) 이후 14,700여명의 軍·警을 대테러 경계 임무에 상시 투입
- 사건 직후, ISIS는 자체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 “마르세유 흉기 공격 집행자는 우리들의 戰士다”라며 테러 배후를 자처
- 프랑스 경찰은 범인이 사건 자행 이전 로마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점을 확인하고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, 이탈리아 경찰은 동명의 남동생 「아니스」를 테러조직 가담과 테러 공모 혐의로 체포
- 한편, 프랑스 「마크롱」 대통령은 범인을 현장에서 적시에 제압한 '상티넬' 작전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며, “軍의 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”라고 언급

테러 상식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 ('04. 4월 결성)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월), 미국('04.12월), 캐나다('12.8월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월, 美 국방부) 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內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월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 ② '17.12월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 ③ '19.4월 스리랑카에서 ISIS 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